#은행별 전담 조직 #대출 평가 변화… ESG 존재감 커진다

장기적 기업가치 중요 요소 부각
은행연합회, 조직개편안 확정
기업 대출 투자시 평가요소에 ES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은행권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도 ESG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ESG가 장기적인 기업가치의 주요 요소로 부각되는 만큼 ESG요소를 반영한 대출·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ESG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연합회 차원에서 은행권 ESG 경영을 지원하고 관련 협의사항을 논의해 ESG경영 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은행, ESG 조직 신설·확대

은행권은 ESG경영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ESG 경영을 위해 ESG 관련 조직을 신설·확대하고 있다.

ESG

환경 Environment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5대 금융지주 ESG 조직개편 현황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NH농협금융
ESG위원회 ESG전략부 ESG 총괄조직(은행)	ESG전략위원회 그룹 ESG추진위원회 그룹 ESG CSSO협의회 그룹 ESG실무협의회	사회가치경영위원회 ESG기획섹션부(은행)	ESG경영위원회(예정) ESG 경영부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 위원회(예정) ESG 전략협의회(예정) ESG 실무회의(예정)

자료/각사

KB금융은 사내·외 이사 9명으로 구성한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SG위원회는 그룹 ESG전략과 정책수립, ESG추진현황 등을 관리·감독한다. 특히 KB금융은 지주 및 계열사 임원 평가 시 친환경 캠페인 횟수, 탄소배출 및 전기사용량 감소 목표달성 여부, ESG 관련 기업 투자 및 공동사업 등의 ESG 성과를 반영한다.

신한금융은 이달 그룹 내 ESG경영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계열사 CEO를 회원으로 하는 'ESG 추진위원회'를 신설했다. 앞서 신한금융은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ESG전략위원회로, 그룹·지속가능 경영 CSO협의회를 그룹 ESG CSSO협의회로, 그룹 지속가능경영 실무협의회를 그룹 ESG 실무협의회로 변경했다.

하나금융은 계열사 CEO를 회원으로 '사회가치경영위원회'를 구성해 ESG 전략을 포함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금융도 ESG전담부서인 ESG경영부를 신설한데 이어 ESG경영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ESG경영위원회는 ESG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ESG 관련 각종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등 ESG 경영전반에 대한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농협금융은 사회가치 및 녹색금융위원회를 신설하고, 손병환 농협금융 회장이 주관하는 ESG전략협의회와 ESG 실무회의도 신설 예정이다.

◆대출 투자시 ESG 반영

전문가들은 금융권의 ESG 경영이 기업들의 대출·투자 평가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임욱빈 한국국제회계학회 연구원은 "비재무적 정보인 ESG경영평가가 당기 및 차기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업 신용평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후문제나 기업총수의 불법행위 등 '오너리스크'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기업 대출 투자 시 평가요소에 ESG요소를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KB금융은 중소기업 대출 심사에 ESG 등 비재무 정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대출과 투자 승인 절차에도 ESG적 요인을 평가하고 있다"며 "자체 여신기본강령이나 모범규준에 따라 사회공익에 반하는 불건전기업에 대한 여신이나 투자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올해 ESG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 ESG평가로 스타트업 지원을 늘리고, 대출투자 심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나금융도 여신업무 내부기준에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업체에는 간접적으로 여신을 제한해 온실가스 저감 등의 친환경운동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환경 사회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장기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ESG에 충실한 기업을 얼마나 많이 발굴할 수 있냐가 관건인 만큼 ESG 평가요소를 반영한 대출 투자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우수고객 플랫폼 '신한플러스' 1500만명 돌파

멤버십 플랫폼·금융거래 앱 결합
금융거래점수 단순화… 편의성↑
수수료 면제·무료 쿠폰 등 큰 호응

신한금융그룹은 24일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혜택을 담은 통합 우수고객 서비스 플랫폼인 '신한플러스'의 멤버십 회원수가 15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신한플러스 멤버십은 작년 4월 신한금융의 우수고객 제도인 '그룹 탑스 클럽(Tops Club)'을 전면 개편해 금융권 최초로 멤버십과 금융거래 앱을 결합한 형태로 출시한 그룹 통합 우수고객 서비스다.

신한플러스 멤버십은 고객 관점에서 금융거래 점수를 단순화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수수료 면제와 무료 쿠폰 및 마이신한포인트 제공 등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다양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많은 고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다양한 제휴처와 협업을 통해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금융/비금융 활용 구독경제 플랫폼 구축 ▲그룹사 협업을 통한 상품 라인업 확대 등 신 서비스 발굴을 통해 기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또 신한금융은 신한플러스 멤버십 회원 1500만명 달성을 기념해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엔 15닷! 신한플러스 15.15.15' 이벤트는 매일 참여할 수 있으며, 100%의 당첨 확률로 마이신한포인트를 5포인트부터 최대 1500포인트까지 제공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플러스가 금융 서비스를 넘어 건강, 편의, 구매 등 다양한 고객 가치를 기반으로 한 라이프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플러스는 신한은행 SOL(쏠), 신한카드 페이판(PayFAN), 신한금융투자 신한 알파, 신한생명 스마트창구 등 신한금융그룹 주요 앱 내에 앱인앱 형태로 탑재돼 추가적인 앱 설치 없이 100여가지가 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우리은행은 2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광통관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 '소상공인 포용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 참석한 권광석 우리은행장(오른쪽)이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우리銀, 네이버파이낸셜과 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융복합 상품 개발 협력

우리은행은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소상공인 포용적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광석 우리은행장과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이사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과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융복합 상품 개발 및 플랫폼 금융서비스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양사는 첫 번째 공동사업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정 소상공인을 위한 우리은행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온라인 사업자는 충분한 대출 상환능력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용상품 출시로 1금융권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온라인 사업자가 필요한 사업자금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도 출시할 계획이다.

/이영석 기자 ysl@

'NH마이데이터페스타 제2탄' 이벤트

NH농협銀 마이목표 서비스 출시 기념

NH농협은행은 개인종합자산관리(PFM) 컨텐츠 'NH자산+'에서 '마이(MY) 목표', '마이 보고서' 서비스를 출시한 것을 기념해 다음달 26일까지 'NH마이데이터페스타 제2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NH자산+ 가입하고! 마이 목표 달성하고!'가 테마다. 총 2만68명을 추첨해 300만원 예금 증서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3종 이벤트로 진행된다.

첫번째 이벤트는 'NH자산+'에 신규 가입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2만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두번째 이벤트는 'NH자산+' 가입 고객 중 '마이 목표'에 이루고 싶은 금융 목표를 설정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총 18명을 추첨해 ▲1등 300만원 예금증서(1명) ▲2등 아이패드프로(2명) ▲3등 다이슨 에어랩(5명) ▲4등 삼성 인덕션(10명) 등을 제공하며, 이벤트 기간 이전 가입 고객도 참여가 가능하다.

세번째 이벤트는 농협은행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고객 중 이벤트 게시물을 공유하고, 2021년 신년 목표를 댓글로 작성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5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댓글에 친구를 소환할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안상미 기자

Sh수협은행

신규 기업회원에 증정품 쏜다

Sh수협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고객들을 응원하기 위해 '신규 가입 기업회원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올해 1월 1일 이후 수협 신용카드에 신규 가입한 기업회원을 대상이다. 가입 이후 3개월 매출액 합산 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골프 라운딩권 등 푸짐한 사은품을 증정한다.

이벤트에 따른 사은품은 법인 회원당 1회 제공되며, 매출 실적 중 지방세, 정부구매, 연구비 매출액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수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

KB국민은행

해외송금 서비스 리뉴얼 기념 행사

총 1000명에 5000 포인트리 지급

KB국민은행은 'KB-이지(Easy) 해외송금서비스' 리뉴얼을 기념해 다음달 말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KB스타뱅킹에서 KB-이지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대한민국 국민인 거주자 개인 고객이다.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5000 포인트리를 지급한다.

KB-이지 해외송금서비스는 영업점 방문없이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미화 5000불 이하의 금액을 연중 24시간 송금할 수 있는 비대면 전용 서비스다. 기존 모바일 해외송금과 달리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없이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USD, EUR의 경우 미화 2달러, 그 외 통화는 미화 4달러의 중계은행수수료로 저렴하게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안상미 기자